

INSS

Global Focus

Weekly

주간 현안 및 쟁점 (2020.11.30~12. 6)

- | | |
|-----|---|
| 미 국 |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 최고치 경신 속 백신 공급 임박
트럼프 2024년 재출마 통해 당내 주도권 회복 시도 |
| 중 국 | 정치공작은 인민군대의 생명선으로서 더욱 강화해야
신시대 빈곤 탈출 과업 목표 완성 선포 |
| 일 본 | 모테기 외무상, 도쿄-베이징 포럼에서 중국 선박 활동 비판
일본 정부, 관광지원책 'Go To Travel' 6월까지 연장 방침 |
| 러시아 | 라브로프, 바이든 美 신정부 출범 이후 미·러 관계의 난항 전망
모스크바 시정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착수 |
| 아세안 | 베트남 총리·주석,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축전 전송
방글라데시 거주 미얀마 난민 일부, 바산차르 섬으로 강제 이주 |
| 유 럽 |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 채택
EU, 유럽-미국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서양 의제' 공개 |
-

미 국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 최고치 경신 속 백신 공급 임박

-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에 이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미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내년 1분기 중 1억~1억 2,500만 회 접종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백신 2종이 배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Reuters·AFP, 12.4)
- 12월 4일 현재 미국의 일일 확진자는 23만5,272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1,477만2,535명으로 늘었으며 일일 사망자도 3,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가족 접촉과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최악 국면에 진입
- 백신 개발에 걸리는 통상적 기간보다 훨씬 짧은 1년 내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 직접 백신을 접종할 용의를 표명
-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감안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라면 자신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접종 받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

트럼프 2024년 재출마 통해 당내 주도권 회복 시도

-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가운데 연내 새로운 선거 캠페인을 발표함으로써 차기 대선을 노리는 공화당 내 예비주자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당내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대두 (The Hill, 12.5)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7,000만 표 이상 얻은 득표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을 도둑 맞았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부각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2024년 재출마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릭 게이트 전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부분부장 등도 트럼프 재출마 가능성을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2024년 재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대선 직후 나온 바 있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해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트럼프의 재출마를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 공화당 내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 등이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재출마 가능성 언급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하 요직을 지낸 이들 예비주자들은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중 국

정치공작은 인민군대의 생명선으로서 더욱 강화해야

- 중앙정치국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군대정치공작조례’ △‘중국공산당통일전선 공작조례’ △‘중국공산당당원권리보장조례’ 등을 심의하는 등 군대, 통일전선, 당원 권리 등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강조 (新華社, 11.30)
- 정치공작은 인민군대의 생명선으로서 오직 강화만 있을 뿐 약화해서는 안되며, ‘군대 정치공작조례’ 수정은 바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당의 19대 정신의 중요한 조치로서 당의 강군목표 실현과 일류군대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
- 회의는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 영도의 근본 원칙과 제도 견지는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의 전면적인 심화 관철로 나타나며, 시진핑 강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에 대한 절대 충성, 절대 순결, 절대 의존으로 확보된다고 강조하고, 당 중앙과 당 중앙군사 위원회에 대한 집중통일영도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
- ▶ 군에 대한 당의 통제 및 영도는 중국 당군관계(黨軍關係)의 오랜 전통이지만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에 대한 재차 강조는 시진핑 주석의 당에 대한 절대적인 영도를 다시 확인 하는 조치로서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인민군대의 생명선으로서 당의 군대에 대한 정치 공작 강조는 시진핑 주석의 군대에 대한 절대 영도의 다른 표현

신시대 빈곤 탈출 과업 목표 완성 선포

-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2월 3일 개최한 회의에서 빈곤 탈출 총결 평가 보고를 청취하고 8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빈곤 탈출의 기본 목표를 완성했다고 선포 (人民網, 12.3)
- 시진핑 주석은 18차 당대회 이래 당 중앙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적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강도(強度)가 강한 빈곤 탈출 전쟁에서 분투하여 1억 명에 가까운 빈곤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놀랄만한 괄목할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회의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불균형한 발전과 불충분한 발전의 문제에서 빈곤 탈출에서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은 막중한 임무라고 강조하고, △가난 구제 사업 △빈곤 탈출 지역 산업발전 기초 시설 지속 건설 △유통방식 혁신 △취업 보장 △직업 역량 강화 등 후속 조치 상시화 강조
- ▶ 빈곤 탈출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과정의 출발점이 될 전면소강사회건설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13.5 계획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차원에서 목표 완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

일본

모테기 외무상, 도쿄-베이징 포럼에서 중국 선박 활동 비판

- 모테기 외무상, 일본과 중국의 유식자들이 의견교환을 하는 ‘도쿄-베이징 포럼’(11.30, 화상회의로 진행)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 (朝日新聞, 12.1)
 - 言論 NPO 등이 실시한 일중공동여론조사에서 중국의 인상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등이 9할이 넘어 약 4년 만에 최악의 결과
 - 모테기 외무상은 이러한 對中 인식의 악화가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 선박의 빈번한 활동의 결과라고 언급하자,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일본 측의 인식에 편견이 있다고 응수
 - ▶ 지난 11월 26일 訪日했던 왕이 국무위원이 일본 어선이 센카쿠(중국어명: 다표위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발언으로 일본 내 중국에 대한 감정이 한층 악화하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 관광지원책 'Go To Travel' 6월까지 연장 방침

- 일본 정부, 관광지원책인 ‘Go To Travel’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방침(朝日新聞, 12.3)
 - 여행 경비의 35%를 할인해주는 상품은 내년 봄까지 유지하되,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보조를 인하하는 방침 검토 중
 -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지원책은 당분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연장 방침 결정
 - ▶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 등이 타격을 입자 정부가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자 Go To Travel 탓이라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러 시 아

라브로프, 바이든 美신정부 출범 이후 미러 관계의 난항 전망

-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美 신정부 출범 이후 미러 양자 관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 (The International Affairs, 12.1)
 - 라브로프는 공식 선거 결과 발표 전에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도 바이든 당선 시 미국 신정부가 오바마 정권의 대외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
 - 또한 그는 미국 국민의 결정을 수용하고 어떤 정부와도 함께 일(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정직, 상호존중, 국내정치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
- ▶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국 지도자로 남아있는 가운데, 라브로프의 발언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러 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모스크바 시정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착수

- 모스크바 시정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 (타스통신, 12.4)
 - 시정부는 이날 온라인 백신 접종 접수의 시작을 공시하고, 70개 접종소의 개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를 올해 말까지 17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 시정부는 우선 18~60세 성인으로 지병이 없는 사람을 백신 접종 대상으로 하되,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
- ▶ 모스크바 시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푸틴 대통령의 12월 2일 지시에 따른 것이며, 자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말미암은 엄중한 상황 인식과 영국의 긴급 백신 사용 승인이 핵심적 배경으로 작용

아 세 안

베트남 총리·주석,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축전 전송

- 응우옌 쑤언 폭 총리와 응우옌 푸 쯡 주석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 축전을 보냈고, 당 티 응옥 틴 국가부주석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 축전 전송 (Vietnam Pictorial, 11.30)
- 바이든의 당선 확정 후 바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등 아세안의 주요 지도자들이 트위터,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지연
-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만 아직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상황
- ▶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을 강조하여 미국과 캄보디아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캄보디아가 의도적으로 축전 전송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방글라데시 거주 미얀마 난민 일부, 바산차르 섬으로 강제 이주

- 방글라데시 정부가 자국 난민촌에 거주하는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중 1,642명을 바산차르 섬으로 강제 이송 (AP, 12.3)
- 방글라데시는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얀마 로힝야족 대량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1,200만 달러를 들여 외딴 오지인 바산차르 섬에 1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 병원, 모스크, 제방 등 건설
- 유엔과 국제인권단체가 방글라데시가 바산차르 섬으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난민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난민의 의사에 반하는 이주는 없다고 주장
- ▶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자국 내 소수민족 중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지 주목할 필요

유럽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 채택

-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 일본 정부의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 채택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 12.1)
 - 지난 9월 25일 베를린 도심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9.29), 철거 요청(10.1) 및 베를린주 상원에 입장 전달(10.7)을 하는 등 대독 압박 행보를 지속해 왔으나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회의 노력으로 소녀상 철거 보류(10.13)
 - 녹색당과 좌파당, 공동 결의안(12.1)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인 전쟁 범죄로서 성폭력 문제를 환기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으로 비단 한일 관계에 한정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소녀상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연장 결정하는 한편, 영구설치 결의안 채택
 - ▶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소녀상의 기존 설치 기한이 다만 6주 연장되었을 뿐, 영구 설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지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전쟁범죄 규탄과 여성 인권의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공공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소녀상을 수호하려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

EU, 유럽-미국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서양 의제' 공개

- EU 집행위, EU 정상회의(12.10-11)에 앞서 美 차기 행정부와 유럽-미국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서양 의제' 공개 (EU, 12.2)
 - EU 27개국 대사들, 최근 11월 30일 화동에서 대서양 관계 개선을 위해 美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이 우선시되는 5개 부문을 포괄적으로 검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경제회복 부양 △기후변화 대응 △평화 안보 증진 △다자주의 등 공동의 가치 옹호
 - '새로운 대서양 의제'는 특별히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산업과 같은 신생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설립하고 세계적 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WTO 상소 기구 개혁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
 - ▶ EU의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유럽 역시 중국이 제기하는 전략적 도전을 위협으로 느끼고 중국발 위협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 전선을 펼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

주요 일지

(2020.11.30~12. 6)

I 미국 I

- 11.30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인도주의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 6개월→9개월로 연장
- 11.30 : 알렉스 워그 대북정책특별부대표, 중국이 유엔 제재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 2만 명 체류 허용 주장
- 12. 2 : 상·하원 합동위원회, 국방수권법(NDA) 합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철수 정책 등에 대해 제동
- 12. 2 : 제이크 셸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중국·호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은 호주와 함께할 것' 트윗 게재
- 12. 4 : 국무부, 美中 문화교류 프로그램 5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선전도구'라고 비난하며 중단 선언

I 중국 I

- 11.30 : 주캐나다 중국대사관, 멩완저우(孟晩舟)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정부는 중국 공민과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 수호의 결심은 흔들림 없다고 강조
- 12. 1 : 천시(陳希) 정국 위원 겸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교장(원장), 추계 제2차 중앙당교 진수반 가학식 연설에서 '간부의 정치 책임' 강조
- 12. 2 : 홍콩 웨스트 카우롱 법원, 조슈아 왕(黃之鋒), 이반 램(林朗彥), 아그네스 차우(周庭) 등 3인에게 2019년 6월 홍콩 시위 참가 혐의로 13.5개월, 7개월, 10개월 징역형 선고
- 12. 3 : 시진핑 주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민지상(人民至上) △사람을 근본(以人爲本)으로 하는 빈곤 퇴치의 출발점 재차 강조
- 12. 4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 "돈키호테가 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우습고, 황당하고, 슬프다"라고 미국의 극단적 반중 정서 표출을 비판
- 12. 5 :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 중미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진정한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양측 모두 선의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 12. 6 : 국가항천국(國家航天局), 창어5호(嫦娥五號)가 달에서 암석 채취 임무를 마치고 달 궤도에 순조롭게 재진입하여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발표

I 일본 I

- 11.30 : 일본 정부, 도쿄도, 대회 조직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코로나19 대책 비용 1,000억엔 규모로 예상
- 12. 2 : 요시카와 전 농림수산업 장관, 양계기업인 '아키타 푸드' 측으로 재임기간에 총 500만엔 수수 혐의로 가택수색
- 12. 3 : 도쿄지검, 아베 전총리 비서 2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 12. 4 : 日英EPA, 참의원 본회의에서 승인, 2021년 1월 1일 발효
- 12. 5 :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처음으로 1주일간 사망자 200명을 초과

I 러시아 I

- 11.30 : 푸틴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CIS 정상회담 관련 전화 협의
- 12. 1 : 모로콜로프 외무차관,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반도 문제 관련 전화 협의
- 12. 2 : 가토 일 관방장관, 러시아에 전날 쿠릴 열도 내 S-300 배치와 훈련 관련 항의
- 12. 3 : 1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2만8천 명 초과
- 12. 4 : 수교 30주년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한러 문화교류 포럼' 개최
- 12. 6 : 외무부, 美 국무부의 쿠릴 4개 섬 출생자에 대한 일본인 간주 발표에 강력 항의

I 아세안 I

- 12. 1 : 싱가포르·홍콩, 코로나19 확산으로 '트래블 버블' 시행을 2021년으로 연기
- 12. 2 : 필리핀 집권 여당,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 상원의원을 대표로 선출
- 12. 2 : 싱가포르, 세계 최초로 실험실에서 배양된 닭고기 판매 승인
- 12. 2 :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 장관, 국부펀드 투자 유치를 위한 3개국 방문 일정 시작
- 12. 4 : 필리핀 경찰국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매질 가능 경고
- 12. 4 : 프랑스 국방장관, 인도네시아와의 라팔 전투기 판매 협상이 순항 중이라고 발언
- 12. 5 :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확산으로 6일 종료 예정이던 일부 지역 이동제한령 2주 연장

I 유럽 I

- 11.30 :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내년 9월부터 화웨이 장비 신규 설치 금지 결정 성명 발표
- 12. 1 :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연례보고서,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내년도 긴급원조가 필요한 인구가 올해 대비 40% 증가 분석 (2억3천5백만 명)
- 12. 1 : 佛 하원,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에 '포괄적 보안법' 24조 경찰관 사진 유포 금지 조항 수정 결정
- 12. 2 : EU 회원국, 국적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규정 도입 합의(유럽판 마그니츠키법)
- 12. 4 :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 급증하는 자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에도 불구하고 독일 우선주의는 없다며 EU 27개 회원국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천명
- 12. 4 : 덴마크,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의 탐사, 추출, 생산 중단 결정
- 12. 6 : 몰도바에서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친서방 성향의 산두 당선자 지지자들, 4일에 이어 현 내각의 사퇴와 조기 총선 실시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 확대 개최